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보도일시 (인터넷) 2024. 9. 5.(목) 11:00,  
(지 면) 2024. 9. 6.(금) 조간

배포 2024. 9. 5.(목) 06:00

## 미국 LA에 중소·중견기업 지원 물류센터 개장

- 우리 중소·중견기업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물류서비스 제공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는 2024년 9월 5일(목) 미국 LA·LB(롱비치)항만 인근에 민관 합작 물류센터를 개장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과 함께 해외 물류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자바, 네덜란드 로테르담, 스페인 바로셀로나에 물류센터 4개소를 구축한 데 이어 미국 최초로 서부지역인 LA·LB항만 인근에 물류센터를 운영한다.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자 우리나라 2대 수출 교역국으로, 최근 미국의 공급망 정책 변화로 인해 대미교역량 및 현지 진출 기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맞춰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발 컨테이너 화물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는 LA·LB항만 인근에 물류센터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LA·LB 물류센터는 부산항만공사와 주성씨엔에어(주)가 합작으로 설립하였으며, 규모는 부지 17,035㎡, 창고 8,514㎡이다. 올해에는 상온 일반화물을 처리하고, 2025년부터 냉동·냉장화물까지 취급화물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은 시중가 대비 10~15% 저렴한 비용으로 다른 화물에 우선하여 물량을 처리할 수 있어 수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물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이 이번 물류센터 개장을 통해 안정적인 물류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해외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유럽, 동남아, 미국에 구축된 물류센터 5개소를 30년까지 미국 중부·동부, 동유럽 등 11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	책임자	과 장	엄익환 (044-200-5750)
		담당자	사무관	박치현 (044-200-5757)
담당 부서	부산항만공사 해외사업실	책임자	실 장	구자림 (051-999-3260)
		담당자	과 장	이다정 (051-999-3261)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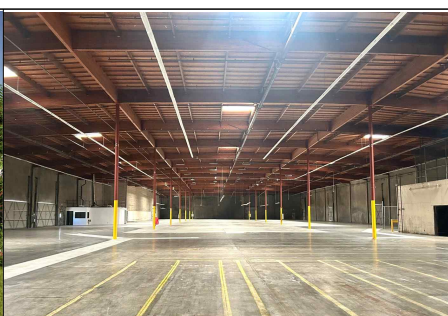
## □ 사업 개요

- (대상지역) 미국 LA·LB 항만 인근 Carson지역  
\* 美 서부지역 LA·LB항으로부터 차로 15분거리 위치
- (규모) 부지 17,035㎡(5,153평), 건물 8,514㎡(2,575평)
- (사업방식) 기존 물류센터 매입 후 합작법인을 통해 직접 운영
- (참여사) 부산항만공사(40%), 주성씨앤에어(60%)

## □ 물류센터 자료



물류센터(외부)



물류센터(내부)



물류센터 Lay-out



물류센터 위치